

< 여기서 뛰어라! - 지금 이곳의 젊은 미술 >

1. 표피적인, 너무나 표피적인 회화

최근 한국 화단에 다시 극사실 회화가 번성하고 있다. 이 환영주의는 예술과 하등 관계없이 인터넷과 멀티미디어의 첨단화와 대중화의 결과로 보인다. 21세기는 새로운 환영주의 시대로 재편되고 있다. 이미 서구에서 70년대, 한국에서는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를 풍미했던 극사실주의(포토리얼리즘)가 왜 다시 부활하고 있을까?

오늘날 젊은 작가들은 감정을 지우고 서늘하게 대상에 육박한다. 그들은 사물의 피부를 애무한다. 관능적으로 피부만을 편애한다. 가능한 언어와 개념을 빼고 사진처럼 정교하게 그리고 예쁘고 감각적인 사물만을 줄기차게 묘사하는 것은 의미를 대신하는 집요한 그리기이고 그 묘사는 일종의 권태로움이기도 하다. 오랜 시간을 공들여 그리는 과정은 힘들지만 시간가는 줄 모르는 재미를 안긴다. 그들은 재미를 위해, 재미있게 그리기 위해 가능한 그리는 순간, 그 시간을 연장하고 지속한다. 그림에 부여되는 과도한 의미나 현학적인 이론, 혹은 담론과 주제를 지워버리고 그린다는 사실, 행위 자체에 몰입하는 그리기다. 그것이 동시대 젊은 작가들의 작업에서 유난히 극사실적인 그림이 많은 이유다. 난해한 미술이론이나 중압감을 심어주는 메시지 같은 것을 털어내고 철저히 그림 그 자체에 집중한다.

생각해보면 그것은 사물의 표면을 열심히 따라가 보는 단순한 그리기이기도 하다. 미술에 대해 머리 아프게 고민하거나 애쓰지 않고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알리바이를 다소 편하게 제공해주는 것이 지금의 극사실주의 그림에 깔려있다. 감각적인 사물과 기호들을 가지고 유희하는 일이고 그것들과 한 몸으로 접촉되는 일이다. 매우 자폐적인 그리기, 그런 삶의 회로이기도 하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회화적 분열, 소비대중문화 속에서 개념적인 것과 팝 적인 것의 이미지 적 분열이다. 많은 화가들이 모니터를 통해 습득한 이미지 정보를 조합하는 것으로 회화를 구성하고 있다. 우리가 매체에 말을 거는 것이 아니라 매체가 형성하는 어떤 이미지와 말을 하고 있다. 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실은 지워지고 매체가 생산한 이미지들 속에서 그 이미지를 재조합하는 현재적 상황을 가지고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회화를 볼 때 매우 공허하다고 여긴다. '시물라크라'가 이제 회화를 잠식하는 현재인 것이다. 현재의 작가들에게 회화는 어쩌면 캔버스가 아니라 스크린의 확장으로 보인다. 작가들은 다만 그것을 회화로 이야기하고 싶어 할 뿐이다. 삶의 실체가 지워지고 창을 통해서 보여 지는 이미지들에 대한 감각적 경험들이 유사 회화적 언어로 재조합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극사실, 사진 같은, 스크린 이미지 같은 회화를 양산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계를 그리기 위해서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개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경험의 세계로, 실세계로 나와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화단은 겉으로는 회화의 부흥기를 맞이한 것처럼 보인다. 반면, 스타일이나 방법론의 획일화나 유사한 작업으로의 경사 등도 눈에 띄고 단지 손에 기능이

나 묘사력에 의존하면서 일을 회화의 복원 내지는 손의 회복 같은 거창한 의미로 포장하거나 작업의 알리바이로 삼으려고 한다는 생각도 든다. 새삼 미술행위가 눈이라는 감각기관과 관계되어 이루어지는 형국을 조망하고 그 눈속임에 기반 한 조형행위의 여러 상황들을 통해 미술의 가장 오래된 본성이 지금 부활하는 이유 및 그 전략과 어법, 특성들을 헤아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최근 그림들이 이전의 그림들과 어떤 변별성을 지니고 있는지 또한 회화에 대한 어떤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 궁금하다.